2019. 10.

《2019. 8. 26(월) ~ 9. 3(화)/ 뉴질랜드(오클랜드, 퀸스타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전 라 북 도 의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Contents

목 차

제1장 연수개요 1

1 연수목적 1

2 개 요 2

3 주요일정 3

4 연수자 명단 5

제2장 주요 연수 내용 6

제1절 공식 기관방문 6

1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6

2 마운트 쿡 국립공원 8

3 아라호에 초등학교(Arahoe Primary School) 13

4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 18

5 뉴질랜드 문화재청(Heritage New Zealand) 22

6 클럽 뉴질랜드(Clubs New Zealand) 26

제2절 현장 시찰 31

1 와이타케레 레인지 국립공원 & 후카폭포 31

2 가버먼트 가든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전통마을 · 34

3 레드우드 수목원 & 호비튼 36

제3장 연수 후기 41

1 절제된 욕망의 결정체, 뉴질랜드 생태관광 41

제1장 연수개요

1 연수목적: 왜 뉴질랜드인가?

1) 도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조사

○ 최근 지역 관광진흥정책에서 개발과 보존의 양립이 화두로 부상함에따라 전라북도에서도 개발 일변도의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속성 상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시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개발압력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외 사례를 직접 탐방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함

2)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체결 이후 국가별로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입법조치를 통해 무형문화 보존과 진흥에서 활용으로까지 무형문화정책의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임

- 전라북도에서도 생활문화를 포함한 무형문화 전반에 대한 재정투자와 사업발굴을 통해 비교적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적 방향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무형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혼재하는 사회로 이주민이 사회주류층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전통과 민속 등 무형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정책적 측면에서도 보존과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사례 조사

○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활체육 활성화의 움직임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등 다각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생활체육의 질적 성장과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의 체계적인 연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되고, 이 과정에서 스포츠 클럽이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스포츠 클럽을 통한 전라북도 체육정책 부흥에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음

2 개 요

○ 연수기간 : 2019. 8. 26(월) ~ 9. 3(화) / 7박 9일

○ 방 문 국 : 뉴질랜드(오클랜드, 퀸스타운)

- 공식 방문기관 : 6개 기관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마운트 쿡 국립공원 ・아라호에 초등학교
・뉴질랜드 관광청 ・뉴질랜드 문화재청 ・클럽 뉴질랜드

- 현장시찰 : 6개 현장

・와이타케레 레인지 국립공원 ・후카폭포
・가버먼트 가든 ・와카레와레와 마우리 전통마을
・레드우드수목원 ・호비튼 영화 촬영지

○ 방 문 단 : 총 10명

- 의 원 (6) : 문화건설안전위원 6명
- 의원보좌 (4) : 전문위원실 직원 4명

3 주 요 일 정

날 짜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8.26(월)	10:30	의회 집결 공항 출발	
	16:50	인천 국제공항 → 오클랜드 국제공항	
8.27(화)	7:15	오클랜드 국제공항 도착	
	8:30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전사자 41명) 헌화	
	12:00	중식	
	13:15	오클랜드 공항 → 퀸스타운 공항	
	15:10	퀸스타운 공항 도착	
	17:00	석식 후 호텔 투숙	
8.28(수)	07:30	호텔 출발	
	11::00	**[기관 방문]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조사 및 현황 점검)**	
	13:00	중식 후 호텔 이동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8.29(목)	07:30	호텔 출발	
	11::00	**[기관 방문] 마운트 쿡 국립 공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조사 및 현황 점검)**	
	13:00	중식 후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이동	
	18:00	석식	
	20:10	오클랜드 공항 출발	
	21:30	오클랜드 공항 도착	
	22:00	호텔 투숙	
8.30(금)	09:00	호텔 출발	
	09:40	**[현장시찰] 와이타케레 레인지 국립공원** **(생태관광 체험·탐방)**	
	10:00	**[기관 방문] Arahoe Primary School** **(무형문화유산인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 전통문화 계승 현장 탐방)**	
	12:00	중식	
	13:00	**[기관 방문] Tourism New Zealand** **(관광마케팅 전략 벤치마킹)**	
	15:00	**[기관 방문] Heritage New Zealand**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선진사례 습득)**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날 짜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8.31(토)	09:00	호텔 출발	
	10:00	**[기관 방문] Clubs New Zealand 및 올림픽공원 (클럽 및 가족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	
	12:00	중식 후 로토루아 이동	
	17:30	로토루아 도착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9.1(일)	09:00	호텔 출발	
	10:00	**[현장시찰] 가버먼트 가든, 와카레와레와 마우리 전통마을 (유·무형문화유산 체험·탐방)**	
	12:00	중식	
	14:00	**[현장시찰] 후카폭포 (생태관광 체험·탐방) [현장시찰] 레드우드수목원 (영화 촬영지 관광자원 활성화 체험·탐방)**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9.2(월)	09:00	호텔 출발	
	12:00	중식	
	13:00	**[현장시찰] 호비튼 (영화 촬영지 관광자원 활성화 체험·탐방)**	
	15:00	오클랜드 출발	
	17:30	오클랜드 도착	
	17:30	석식 후 호텔 투숙	
9.3(화)	07:30	호텔 출발	
	10:15	오클랜드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19:35	인천공항 도착	
	23:30	전주 도착/ 해산	

4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0명	
도의회 (10명)	문화건설안전 위원회 (6명)	위 원 장	정 ○ ○	
		부위원장	이 ○ ○	
		위 원	이 ○ ○	
		〃	김 ○ ○	
		〃	나 ○ ○	
		〃	이 ○ ○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실 (4명)	팀 장	한 ○ ○	
		주 무 관	설 ○ ○	
		주 무 관	문 ○ ○	
		주 무 관	이 ○ ○	

제2장 주요 연수 내용

제1절 공식 기관 방문

1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 방문목적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뉴질랜드 대표 국립공원이며 산림휴양, 산악레포츠, 트레킹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생태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사례임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8(수) 11:00 ~ 13:00
○ 장　　소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안내소
○ 면 담 자 : 총괄매니저, Nedra Burns
○ 내　　용 :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지 운영 현황 등 청취 및 질의답변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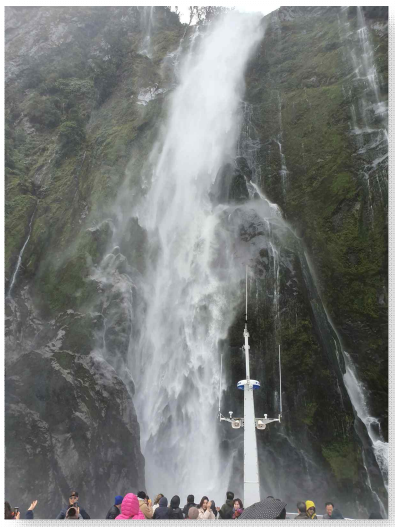
○ 현　　황

-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으로, 1952년 조성
- 면적은 약 12,607㎢이며, 1990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 700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수는 약 94만 명 정도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 주요 생태관광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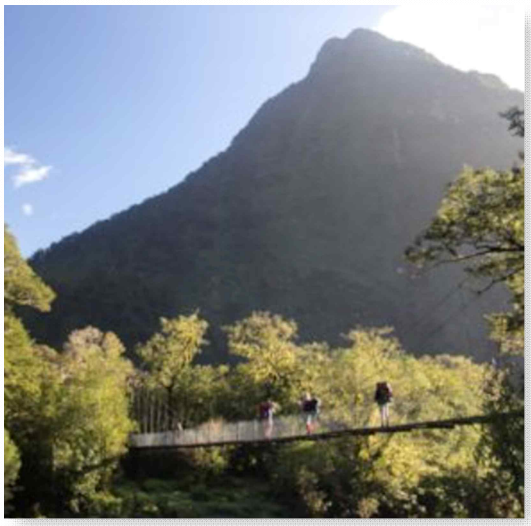
-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 길이 약 16Km인 협만과 1,000m 암벽 사이를 가로지르는 크루즈 코스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폭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대표 관광상품 임
- **(밀포드 사운드 트랙)**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인 밀포드 트랙은, 53.3km의 트랙이 4박5일간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9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연 방문객 3만명 이상이 찾는 유명 관광상품 임





<밀포드사운드 크루즈>





<밀포드사운드 트랙>

※ 밀포드 사운드 트랙(일정상 체험하지 못함) / 사진 출처 – https://www.newzealand.com/kr

2 마운트 쿡 국립공원

❑ 방문목적

○ 산림휴양, 산악레포츠, 트레킹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뉴질랜드 대표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각종 생태관광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14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생태관광사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29(목) 11:00 ~ 13:00
○ 장　　소 : 마운트 쿡 국립공원 안내소
○ 면 담 자 : 총괄매니저, Brent Swanson
○ 내　　용 :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지 운영 현황 등 청취 및 질의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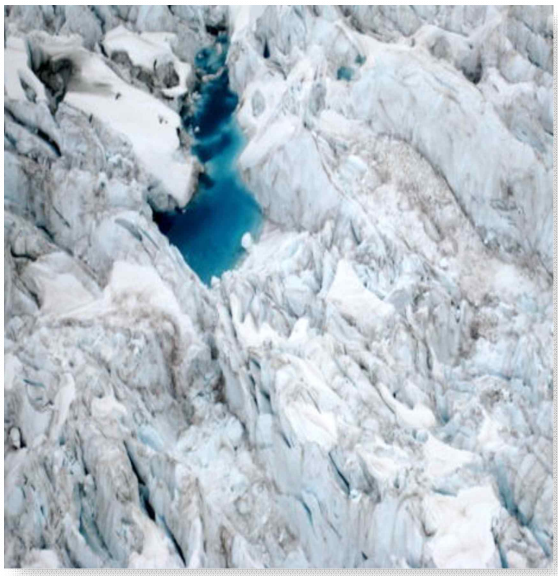
❑ 일반현황

○ 현　　황

-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마운트 쿡에 소재(1953년도 조성)
- 면적은 약 700㎢이며, 총면적의 40%가 빙하로 덮여있음
- 199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 국립공원 내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마을주민은 국립공원에 종사하는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연간 방문객수는 약 100만명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주요 생태관광상품

- **(빙하 투어)** 뉴질랜드 3대 빙하 중 최대 규모인 타스만 빙하를 체험하는 관광상품으로 해빙기 기간(10월~4월)동안 한시적으로 빙하투어가 가능함
- **(헬기 투어)** 헬기를 이용하여 해발 3,000m 이상인 19개의 산 사이를 가로지르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코스





<빙하 투어>





<헬기 투어>

※ 빙하투어, 헬기투어(일정상 체험하지 못함) / 사진 출처 – https://www.newzealand.com/kr

❑ 시 사 점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마운트 쿡 국립공원]

○ 뉴질랜드의 모든 국립공원은 DOC(Department of Conservation)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기업 간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각 국립공원 및 관광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장기보존계획을(10년 단위) 수립, 관광정책에 적용하고 있음

○ 또한, DOC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객들이 각 국립공원별 생태관광지의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예약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통해 민간시장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국가나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생태관광지 개발이 아닌 민간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역할 수행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민과 관광객 간 상호 만족도 향상
-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이 가능

○ 관광지 대부분은 무료이며, 유료 서비스의 경우 민간시장 기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관리역량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관광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관리주체는 DOC, 지자체, 민간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DOC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트랙을 조성 및 유지관리하며, 자연 그대로의 원형성 유지를 원칙으로 고수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하에서 작동

○ 그동안 눈으로만 보는 시각적 관광에서 참여와 체험을 통해 그 속에서 건강을 찾기 위해 산을 즐기는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 최근, 단순한 방식(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객,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케이블카 등)에서 벗어나 환경과 더불어 호흡하고 즐기는 방식의 생태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 이처럼, 자연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방식인 뉴질랜드 국립공원의 무동력 트레킹은 개인 취향에 따라 하이킹, 사이클링, 스키 등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맞춤형 관광이 가능함

○ 도내 산안관광자원(지리산권, 덕유산권, 변산반도 등)들은 토탈관광,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구간별로 다양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형 생태관광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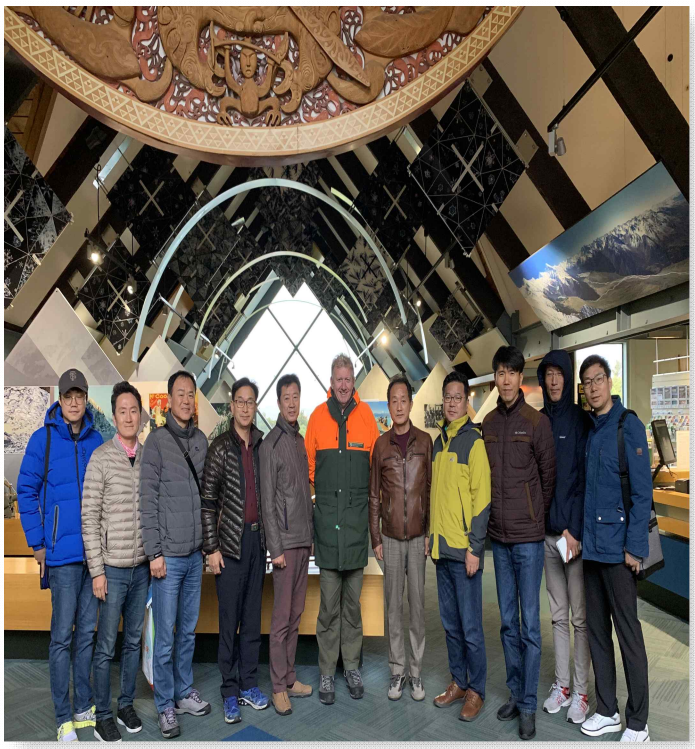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안내소>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안내소>





<마운트 쿡 국립공원 안내소>

3 아라호에 초등학교(Arahoe Primary School)

❑ 방문목적

○ 무형문화유산의 우수 보호 사례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전통문화를 보전 전승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시행중인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1인 1체육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전라북도 정책에 접목 시기코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30(금) 10:00 ~ 12:00
○ 장　　소 : 아라호에 초등학교
○ 면 담 자 : 교장, Richard Limbrick / 국회의원, Deborah Russell
○ 내　　용 : 무형문화 보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 정책 청취 및 질의답변 등

❑ 일반현황

○ 개　　요
- 위　　치 : 오클랜드, 뉴린
- 학 생 수 : 781명 (남52%, 여 48%)

※ 마오리 10%, 백인 28%, 인도 24%, 태평양 13%, 아시아 14%, 기타 11%

- 교육목표 : 문화다양성에 기초하여 학생들 간 존중을 통해 다양한 관점, 가치관, 관습, 언어, 문화 등의 이해와 배려를 교육
- 홈페이지 : https://www.arahoe.school.nz
- 자매결연 : 남원 도통초중학교와 글로벌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 중

○ 무형유산보존·전승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뉴질랜드는 다양한 이민족으로 구성되어 초등교육 등을 통해 기초 학습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 간 다양한 관점, 가치, 관습 및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라호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국의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오리 족 문화(마오리 언어, 예술, 전통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제2 외국어로 중국어, 한국어 등이 채택되고 있음

○ 학생체육 운영 현황

- 뉴질랜드에서는 유·소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교 및 가족 단위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종목(네트볼, T- 볼, 리파 럭비, 육상, 크로스 컨트리, 수영 등)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음

❑ 시 사 점

○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전 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초교육 단계에서부터 시도되고 있음

- 이주민의 원주민 지배로 인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맥락도 간과할 수 없으나, 유소년 및 청소년 시기부터 '다름의 가치'를 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분명해 보임
- 이러한 제도권 교육에서의 노력은 비록 이주민과 원주민이라는 대립적 구도가 없는 한국적 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는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이른 바 '다문화학생'으로 인한 학교 내에서의 갈등과 졸업 후 겪는 정체성 갈등과 차별문제를 고려했을 때, 전라북도 교육행정에서도 뉴질랜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교육효과 제고

- 문화 다양성 교육에는 마오리족의 언어와 전통음악, 민속 등 마오리 문화를 몸으로 체득하기 위한 신체적 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
-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마오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전개되는 다각적인 교육적 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마오리의 전통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계승시키려는 사회적 인식 형성으로까지 이어짐으로써 복합적인 효과로 귀결

○ 엘리트 체육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소수가 아닌 누구나 자연스럽게 학교 및 클럽 등을 통해 많은 체육 종목들을 접하면서 흥미유발을 통한 엘리트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및 교육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음

- 뉴질랜드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필수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여기에는 과도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를 극도로 거부하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밑바탕에 있음
- 즉, 학교에서의 스포츠 활동과 학교밖 또는 졸업 후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에 못지않게 스포츠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중시하는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함

❑ 방문사진



<아라호에 초등학교 - 한국문화 교육 현장>



<아라호에 초등학교 - 마오리 전통문화 교육 현장>



< 아라호에 초등학교 >



< 아라호에 초등학교 >

4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

❑ 방문목적

○ 뉴질랜드 관광현황 및 관광전략, 국내·외 관광마케팅 정책 사례 벤치마킹

○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는지에 대한 확인 및 시사점 도출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30(금) 13:00 ~ 14:30

○ 장　　소 : 뉴질랜드 관광청 회의실

○ 면 담 자 : CEO, Stephen England-Hall / 이사, Rene de Monchy

○ 내　　용 : 뉴질랜드 주요 관광정책 및 홍보전략 청취 및 질의 답변 등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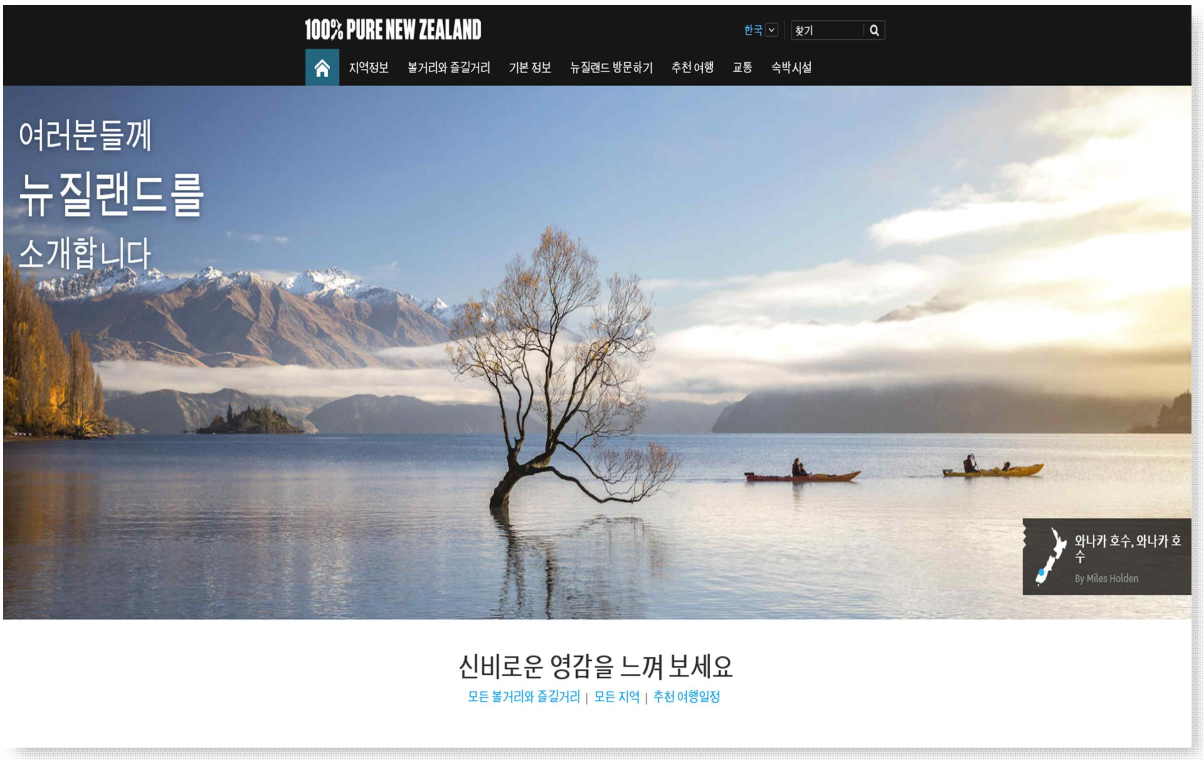
○ 현　　황

- 뉴질랜드 관광청은 1991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서, 관광부 장관에 의해 임명 된 이사회가 이끄는 약 1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100% PURE NEW ZEALAND'라는 하나의 관광 브랜드를 내세워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캠페인 추진

≪뉴질랜드에서의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 최대 외화수입원(2018년도 해외관광객 지출액 40억불)
○ 95%국민이 해외관광객 유치 필요성 공감
○ 국민 1/7이 관광산업에 종사6
○ 뉴질랜드 방문 해외여행객의 여행만족도는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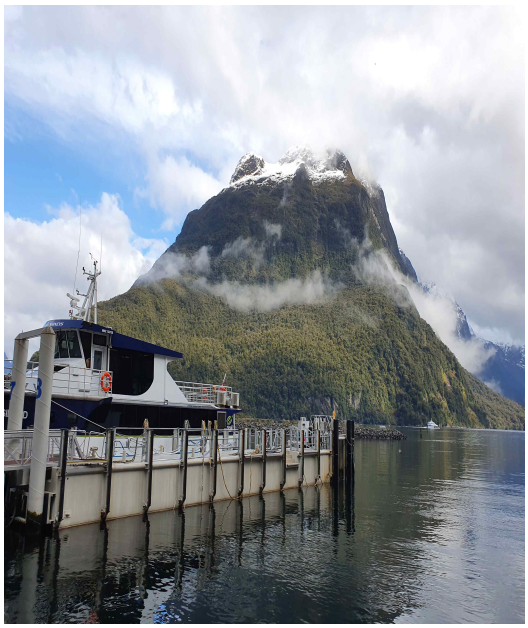
-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newzealand.com)를 통해 관광과 관련된 각종 정보(교통, 숙박, 방문지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트 자체적으로 예약 시스템을 지원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뉴질랜드 관광청 홈페이지 - 한국어로 번역되어 접근성이 용이>

100% PURE NEW ZEALAND
newzealand.com

<뉴질랜드 관광청 홍보 브랜드>



<청정지역 뉴질랜드>

❑ 시 사 점

○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서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시도 전개

- 뉴질랜드 방문 관광객수 상위 6개국에서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서 관광객이 감소(감소율: 중국 8.0%, 영국 3.3%, 독일 1.0%, 일본 0.8%)
- 관광객 유치규모 감소에 따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 전개
- 뉴질랜드의 관광매력도에 대한 국가별 대륙별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한국도 신시장 개척으로 주목하고 있음)
- 청정 뉴질랜드(100% Pure Newzealand)를 기치로 내걸고 뉴질랜드 관광자원에 대한 일관된 브랜딩(branding)

※ 청정 뉴질랜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배포
- 반복적인 노출을 유도함으로써 뉴질랜드 관광의 이미지 구축과 선호도 향상에 주력

○ 철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관광산업육성정책 추진

- 성수기 - 비수기 사이의 간기(間期)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
- 전략적인 관광시장 관리 및 유지
-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산업부문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 자료 분석과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시장 혁신, 시즌별 관광객 분산,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와 가치 지향적인 관광객 집중 유치 등 일련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뉴질랜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음

○ 해외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나, 수용태세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음

- 법률적 규제가 철저하게 유지되어 있고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편임

❑ 방문사진



<뉴질랜드 관광청>



<뉴질랜드 관광청>

5 뉴질랜드 문화재청(Heritage New Zealand)

❑ 방문목적

○ 뉴질랜드 전통 무형문화재 보존 현황 및 관련 정책 벤치마킹

○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의 무형문화 보존 및 육성 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 모색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8. 30(금) 15:00 ~ 17:00

○ 장　　소 : 뉴질랜드 문화재청 북부지소 회의실

○ 면 담 자 : 문화재청 북부지소장, Bev Parslow 외 6명

○ 내　　용 : 무형문화재 보전정책 및 전승전략 청취 및 질의 답변 등

❑ 주요내용

○ 현　　황

- Heritage Newzealand(이하 뉴질랜드 문화재청)은 2004년 관련법(Crown Entities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문화유산부를 통해 예술, 유·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정부기관임

-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리되고 있고, 웰링턴을 중심으로 6개 지역에 지소를 두고 유·무형 자산보호 및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 각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문화재 발굴 및 형상변경을 심의하며, 엄격한 보존정책을 통해 뉴질랜드 문화유산 보존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

❑ 시 사 점

○ 뉴질랜드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핵심은 정체성(identification) 보존과 계승에 있음

- 유적 등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과 학술발굴은 모두 뉴질랜드인(키위, Kiwi)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존·계승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뉴질랜드 문화유산법≫

○ Heritage New Zealand Pouhere Taonga Act 2014
○ 뉴질랜드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이 지닌 정체성의 고양과 역사 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유산 보호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정체성인 이유는 뉴질랜드 사회의 역사적 특성에 기인함

- 원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원주민의 전통과 문화를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노력과 선조들의 이주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병행

○ 뉴질랜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보전/진흥이라는 대전제 하에 다수의 문화유산 목록을 구축·관리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 문화유산 관리현황 : **5,787개**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사적구역	130	Wahi Tapu[1)]	107
사적지(카테고리1)	1,031	Wahi Tapu Area	72
사적지(카테고리2)	4,426	Wahi Tupuna	2

※ 역사 유적지를 종류에 따라 카테고리 1, 2로 분리하여 관리

1) 마오리족의 전통, 신화, 신앙 등과 관련된 문화유산/유적

- 뉴질랜드 문화재청 중심의 복합적인 문화유산 보존기능 수행

  1. 문화유산 보존정책 입안 및 추진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2.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관련 규제기능 수행
  3. 뉴질랜드 역사·문화유산 목록 구축 및 관리
  4. 국유지 처분 및 국유재산 관리(역사문화유적 관련된 사안에 국한)
  5. 박물관 관리, 운영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전

- 정부와 민간 상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호노력 전개
-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전·보호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유도
- 민간부문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뉴질랜드 사회의 특장점에 기인한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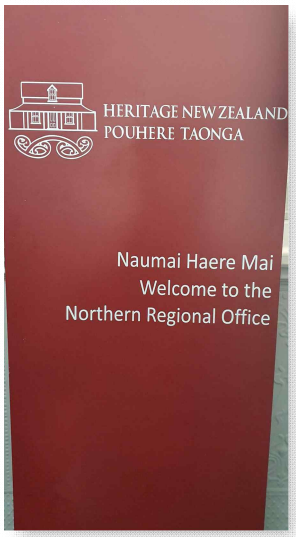
○ 예외 없는 법률규제 적용으로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 차단

- 고고학 유적 훼손 방지 : 관련법률에 따라 고고학적 발굴작업을 방해하거나 해당 유적을 훼손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

  ※ 우리나라도 유사한 법률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음

- 유형의 문화유산 특히, 건축물의 경우 현상변경을 시도할 경우에도 뉴질랜드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보다는 문화유산 보호를 우선시함으로써 현상변경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음

❑ 방문사진





<뉴질랜드 문화재청 북부지소>





<뉴질랜드 문화재청 북부지소>

6 클럽 뉴질랜드(Clubs New Zealand)

❑ 방문목적

○ 스포츠클럽을 스포츠 진흥의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전라북도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방문개요

○ 일　　시 : 2019. 9. 1(토) 10:00 ~ 12:00

○ 장　　소 : 클럽 뉴질랜드 운동장

○ 면 담 자 : 북부지역 매니저, Dave Tilley 외 1명

○ 내　　용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클럽 운영 및 지원 현황 및 질의 답변 등

❑ 주요내용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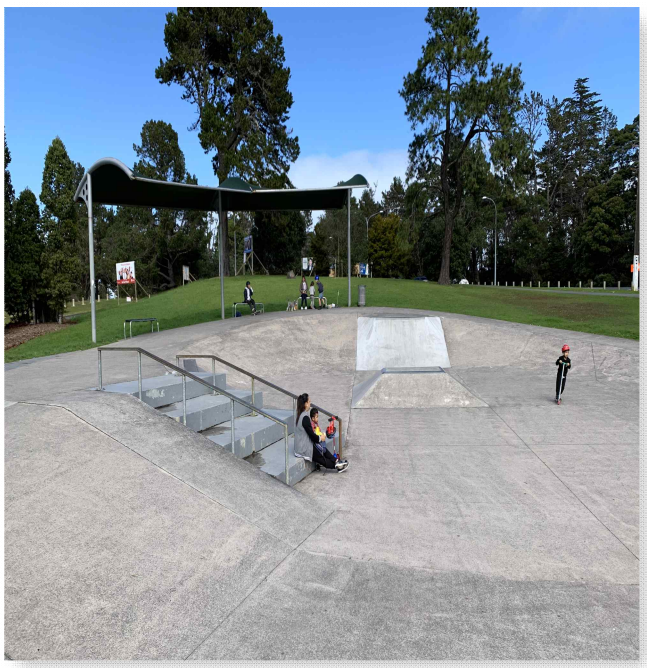
- 클럽 뉴질랜드는 300개 이상의 클럽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약 280,000명의 체육인이 속해 있음

- 운동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클럽 활동 참여 유도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 개인 및 클럽 순위 관리를 위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생활체육인의 단계에서부터 엘리트 체육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회원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클럽활동 속 생활체육 현장 - 럭비>





<가족단위의 생활체육 현장 - 보드, 인라인>

❑ 시 사 점

○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은 가족 중심의 스포츠를 바탕으로 활성화, 습관화하기 위하여 각 정부기관 및 학교, 스포츠클럽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SPARC(Sports & Recreation New Zealand)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가적인 지원은 체계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교와 스포츠 클럽 안에서 사회질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전한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음

※ 스포츠클럽에서의 체육활동의 효과를 단순한 여가향유나 건강증진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복합적인 사회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 설정

○ 클럽뉴질랜드의 네트워킹 역할

- 클럽뉴질랜드라는 일원화된 기구를 통해 개별 시민들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스포츠클럽 간의 교류를 매개
- 네트워킹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체계적인 스포츠활동 참여와 관리가 가능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자연스러운 연계

- 클럽뉴질랜드 중심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계와 도약을 가능하게 함

○ 스포츠활동에 대한 높은 접근성

- 노인과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체육활동의 진입장벽을 낮춤
-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효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효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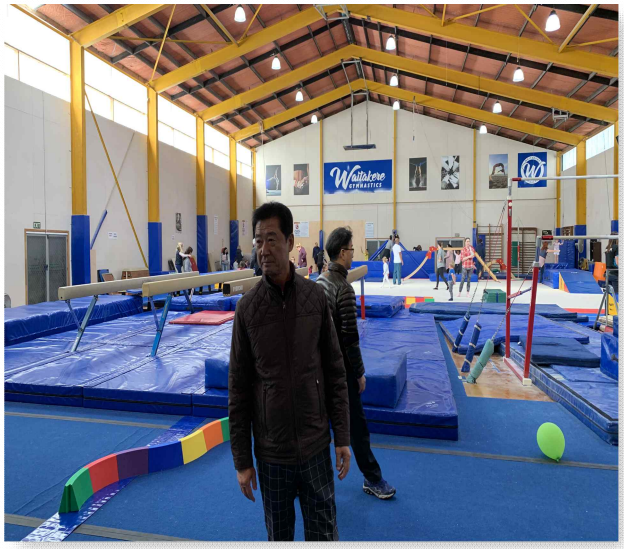
❑ 방문사진



<클럽 뉴질랜드 - 오클랜드 지소>



<올림픽 공원 - 오클랜드>





< 와이타케레 체육관 >



< 와이타케레 체육관 >

제2절 기관 시찰 및 현장 견학

1 와이타케레 레인지 국립공원 & 후카폭포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천연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운영사례 견학을 통해 도내 생태관광지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방문개요

[와이타케레 레인지 국립공원]

○ 일　　시 : 2019. 8. 30(금) 09:40 ~ 10:10

○ 내　　용 :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지 운영상황 점검 등

○ 현　　황 : '카우리나무' 주요 서식지로 총 250km의 트래킹 코스가 있으며,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 접근성이 용이함

[후 카 폭 포]

○ 일　　시 : 2019. 9. 1(금) 14:00 ~ 15:00

○ 내　　용 : 생태관광지 시찰 및 점검 등

○ 현　　황 : 초당 20만 리터의 강물이 떨어지는 폭포로 30분 이내로 코스가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의 회전율이 높고, '타우포'시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임

❑ 시 사 점

○ 원형보존 중심의 생태관광 자원 활용

- 뉴질랜드의 국립공원 관리·운영은 활용보다 보전에 초점
- 국립공원 구역 내 상업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은 생태환경에 훼손 방지를 넘어서 원형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이루어지고 있음

○ 보전 중심의 생태관광지 조성과 방문객 행동특성의 상관관계

- 위락/편의/상업시설 설치의 최소화는 생태관광지 내에서의 방문객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침
- 생태관광지 내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행위가 아니라 트랙킹과 산책, 독서/휴식, 단순관람을 위주로 한 행동특성을 보임
- 즉, 수용태세 확충을 이유로 생태관광지의 자연환경과 생태조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형보전에 힘쓰고, 방문객 역시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행위로만 만족

○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생태관광지를 생태교육 현장으로 활용
- 주된 참여층은 학생이지만 성인들의 참여도 역시 높은 편
- 생태관광지 내에 생태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태관광지를 단순 관광목적지가 아닌 교육현장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음

❑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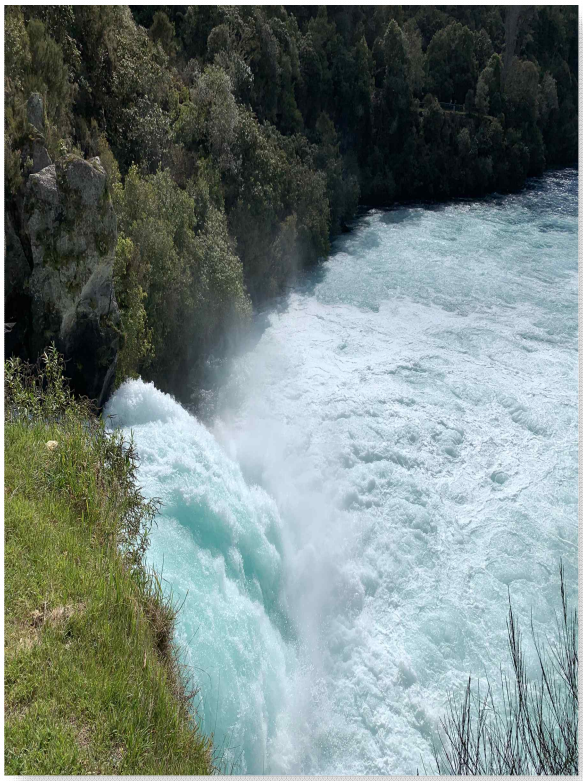




< 와이타케레 레인지 국립공원 >



< 와이타케레 레인지 국립공원 >





< 후카 폭포 >

2 가버먼트 가든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전통마을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각종 유·무형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연계상품의 시찰을 통해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다양한 발굴 방향 제안

❑ 방문개요

[가버먼트 가든]

○ 일　　시 : 2019. 9. 1(토) 10:00 ~ 10:30

○ 내　　용 :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현황 점검 등

○ 현　　황 : 식민지시대의 관청으로 사용된 튜더 타워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건물들을 활용한 영국식 전통 정원과, 마오리 족의 목각인형 조형물이 혼합되어 문화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뉴질랜드 대표 관광지임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전통마을]

○ 일　　시 : 2019. 9. 1(토) 11:00 ~ 11:40

○ 내　　용 :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지 운영상황 점검 등

○ 현　　황 : 로토루아 지열지대에 위치한 마오리 원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로 마오리족 문화를 관광상품화(공예품, 공연 전통가옥 등)하여 수익을 창출, 마을을 운영하고 있음

❑ 시 사 점

○ 다양성의 가치와 관광상품화의 공존

- 국가 차원의 마오리족 전통과 문화 존중

※ 미국, 호주 등 주요 이민국가 사례와 달리 뉴질랜드는 원주민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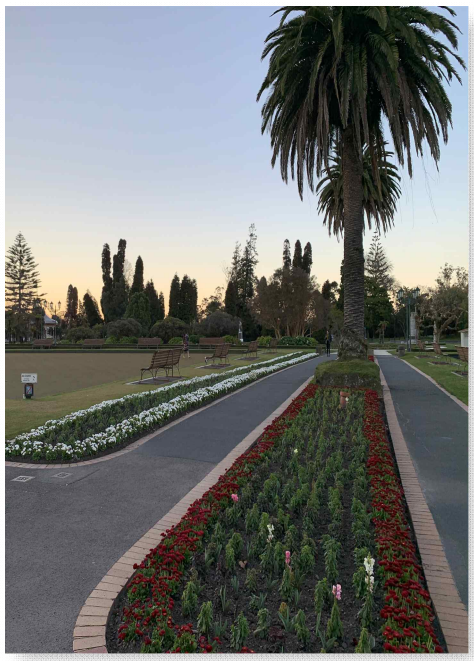
- 마오리 전통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 마오리족 전통과 문화의 관광상품화로 발생한 수익은 마오리재단 등 마오리족에게 귀속됨
- 배척과 억압 대신 적극적인 존중과 수용을 통해 마오리족 전통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다양한 상품화를 통한 관광지 매력도 제고

- 지열지대와 같은 자연환경과 마오리족 전통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 (관광지 매력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효과에 기여)
- 마오리족이 실제 거주하면서 관광지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관광상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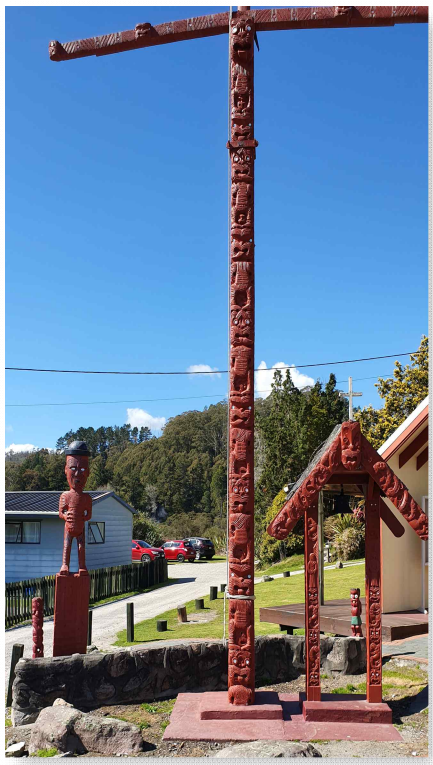
❑ 방문사진





<가버먼트 가든>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전통마을 >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전통마을 >

3 레드우드 수목원 & 호비튼

❑ 방문목적

○ 뉴질랜드의 유명 관광상품(영화촬영지)을 체험·확인하고 도내 각종 매체에 등장한 장소를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레드우드 수목원]

○ 일　　시 : 2019. 8. 30(금) 16:00 ~ 17:00

○ 내　　용 : 생태관광지 체험

○ 현　　황 : 영화 '아바타', '쥬라기공원'의 촬영지로 빽빽하게 늘어선 나무사이로 다양산 시간대의 트레킹코스가 구성되어 있음

[호 비 튼]

○ 일　　시 : 2019. 8. 30(금) 16:00 ~ 17:00

○ 내　　용 : 영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사례 시찰

○ 현　　황 : 영화 '반지의제왕, 호빗'의 촬영지로 영화 초반 호빗족 마을을 재구현하여 관광상품화 한 곳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힘

※ 호비튼 구현을 통해 한해 발생하는 관광수입이 7억 NZD(한화 5,222억원 정도) 증가함

❑ 시 사 점

○ 레드우드수목원과 호비튼 사례 비교

- 두 사례 모두 영화촬영지를 관광콘텐츠로 적극 활용하는 공통점
- 반면, 레드우드수목원은 철저한 보존을 통해, 호비튼은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통해 대표 관광지로 성공시켰다는 차이점이 있음

- 사례 비교

레드우드 수목원	호 비 튼
세계적인 영화를 촬영한 장소로 유명세를 타며 관광지로 조성	
산림자원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방문객 수용	촬영세트장으로 조성된 인프라를 보존하고, 이를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 ※ 철저한 수익창출 구조로 운영

○ 관광산업 육성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및 민·관의 협업의 중요성

- 호비튼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촬영장소로 협조·제공하고 촬영이 종료된 이후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

-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관계당국은 도로개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역할을 독려

-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민간이 착안해서 주도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공

❑ 방문사진





<레드우드 수목원>





< 레드우드 수목원 >





< 호비튼 >



< 호비튼 >



< 호비튼 >

제3장 연수 후기

절제된 욕망의 결정체, 뉴질랜드 생태관광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자. 참고로, 이 상상은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버킷리스트를 떠올리는 것과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겠다.

만년설로 뒤덮여 하늘과 닿아 있는 고산 준봉이 이어지고 눈이 부시다 못해 시릴 정도로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와 호수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미세먼지와 같은 불청객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스키 슬로프가 있고, 번지점프와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트래킹, 다양한 액티비티가 언제든 가능하다. 산악과 평원, 바다 같은 호수 또는 호수 같은 바다가 어우러지고 여기에 정돈된 도시공간까지 더해져 여행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처럼 어디를 가도 청정자연의 대향연이 반겨주는 곳, 그곳이 바로 전라북도라고 상상해보자.

관광산업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민자유치에 골머리를 앓을 일도,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관광분야 민간위탁사업에 행·재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계획적인 관광지 개발계획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SOC 구축만 해놓는다면 물 밀 듯 밀려오는 건 민간자본이요, 너나없이 찾아오는 게 관광객일 것이다. 여기에 관광지 매력도와 관광객 재방문율 제고는 덤이다.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라북도의 고민도 지금과는 다른 무엇일 것이다. 말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 부분의 관광지 개발과 SOC 구축만 빼면 말이다.

이유가 뭘까. 풍부하다 못해 넘치고 넘치는 관광자원을 거의 개발도 하지 않고 SOC도 변변치 않은 채로 둔다니, 우리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연수기간 중 공식방문한 뉴질랜드 관광청 관계자 그리고 우리로 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에게 이 점을 반복적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한결 같았다.

개발이든 무엇이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규제가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뉴질랜드 남부의 퀸스타운이라는 지역에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으로 이동하는 데 버스로 5시간이 걸렸다. 가로 질러 가면 불과 8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터널을 뚫어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극심한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왕복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왕복 10시간이라는 극심한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인데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의심의 여지없이 터널을 뚫고 길을 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여행객을 맞이하기 위해 수용태세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즐비하게 들어섰을 것이다.

개발에 대한 집단적 욕망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환경파괴나 과잉관광 즉,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사실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것은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어떻게 양립시키고 유지시켜가면서 (생태)관광산업을 진흥시켜나가느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다. '퓨어(Pure) 뉴질랜드'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뉴질랜드는 개발과 보존을 양립시키는게 아니라 보존 그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었다.

개발을 향한 사회의 집단적 욕망을 철저히 제어하고 이것을 법적·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하면서 청정(pure)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올곧은 노력, 그 결정체가 바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뉴질랜드 생태관광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전라북도의 생태관광이 지향해야 할 지점도 무엇인지 보다 명확해지지 않을까.